주체 1 0 8 (2019)년 8월

토요일 음력 7월 3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일 떠 세 우 자 !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무 력 김정은원수님께서 7월 31일 새로 개 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와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력건설 포병현대화전략적방침에 을 맡게 될 신형조종방사탄을 개발하 가운데 시험사격이 진행되였다.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고 첫 시험사격을 진행하게 된 일군 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란 궁

제32호 【루계

제 2 5 5 3호]

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보시는

형대구경조종방사탄의 전술적제원과 기술적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하였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종방사포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체계

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

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사격결과가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형대구 과에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민 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결과를 보 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 시험사격을 통하여 새로 개발한 신 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 무기의 과 서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또 하 나의 훌륭한 우리 식 방사포무기체계 를 만들어낸 국방과학부문과 군수로동 털어버릴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것이 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세기를 비약하는 영광의 행로를 걸어온 사회주의조선은 존엄높은 자주강국, 위대한 인민 의 나라로 국제사회의 찬양을 받 고있다.

지도하시였다.

령도자가 위대하여 나라도 인 민도 위대하다는 철의 진리를 주체조선의 현실을 통해 절감한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전략가, 희세의 특출한 지도자로 격찬하 면서 저저마다 위인칭송의 붓을 들었다.

그 들 가 운 데 는 도 서 《김정은정치의 오늘》을 집필 한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 소 전 대표 나다 다까시도 있다.

그는 우리 인민이 령도자의 두 리에 굳게 뭉쳐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경이적인 사변을 련이어 창출하 고있는데 대해 서술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을 칭송하였다.

경 애 하 는 원 수 님 의

라 단기간내에 지상군사작전의 주역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무 무기체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개 전반에 대한 전투적용효과성이 검증 라고 말씀하시였다.

다 함 없 는 흠 모 를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매혹되여 붓을 든 외국의 인사들

리론업적을 전하고있다.

원수님의 불후의 저서들을 묶은 도서 《주체사상을 믿음직하게 계승하시여》, 《인민의 리익을 위한 주체사상》을 내놓았다.

도서발행식에서 그는 주체사 상에 대한 도서를 2015년에 비범한 예지와 강철의 의지, 무 발행한데 이어 련속편으로 도서 《인민의 리익을 위한 주체사 상》을 출판하였다고 하면서 조 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 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 하였다.

《조선의 대답》의 저자들인 영 영상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고 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하드슨, 로씨야작가 라브렌찌 구 장의 격정을 터친 외국의 인사들 혁명활동주요월력, 로작용어해 르쥐예브, 주체사상연구 베네수 은 이뿐이 아니다. 설 등이 편집되여있는 도서는 존 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 -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영하는 김정은시대에 이르는 력 시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로들이 세계최고관심의 10대명인 고있다.

에스뚜아르도 마르띠네스 뻬레스 로씨야 포름도서출판사 사장 는 도서들에서 절세위인들의 세 울라지미르 씌쵸브는 경애하는 련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인민이 년대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제 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 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수 있은데

대해 해설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의 담력과 배짱에 의해 공화국 의 불패의 기상이 만방에 펼쳐지 고있는 사실을 전하고 최악의 역 경과 시련속에서도 조선을 세계 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인민이 자 자손손 자주적이며 참된 삶을 누 려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해 《선군을 옹위하여》, 《류례 주신것은 나라와 민족앞에 쌓아 없는 70년》, 《승자의 력사》, 올리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업적 중의 업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심

뤗이 명시하신 절세위인의 사상 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서기장 《새로운 시각으로 본 조선》에서 족사적인 특대사변들과 결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의의 태양, 만복의 은인, 무적의 대장군으로 힘있게 론증하였다. 호칭하였다.

>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 아브둘라이에 디알로는 시집 《선군의 발걸음 따라》에서 김정은원수님을 만민의 다함없 는 흠모를 받으시는 현시대의 걸출한 령도자로 칭송하고 그이 의 두리에 일심으로 뭉쳐 사회 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음을 격조높이 토로 하였다.

《조선에 대한 나의 리해》를 쓴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3개의 장으로 구성 된 도서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 애 하 는 원 수 님 의 령 도 의 서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께서 계 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뚜 뻬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 유리 까스뜨로 로메로는 도서 사적기간 공화국에서 이룩된 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필연성을

한편 벨라루씨잡지 《사회교양》 책임주필인 위쩹스크주체교육학협 회 책임자 쎄르게이 제뱌띄흐, 베 네수엘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하는 도서들을 내놓았다. 소조 책임자 예쎄니아 가르씨아는 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의 인민교육개요》, 《교육의 무 릉도원을 보다》를 집필하였다.

도서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교육혁명의 새로운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공화국의 현실, 전반적12년 제의무교육제도의 혜택속에 세상 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 나는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모습 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필자들은 동방조선이야말로 인 류가 경탄하는 리상향이라고 하면

국과의 런대성그루빠 책임자 위 딸리 레베제브, 끼쁘로스조선문 화친선협회 위원장 아다모스 까 찬토니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인 사들은 절세위인의 한없이 숭고 한 인민관과 고매한 풍모를 격찬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엠. 자한기르 칸,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 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윅또르 뻬뜨로브, 브라질시인 마리아 모라 이스는 도서 《김정은, 인민사랑 의 정치》, 《인민사랑의 태양》, 《평양—가서 보시라》에서 이민 위천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고의 위인으로 칭송하 고 인민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길 에 꽃펴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감동깊게 서술하였다.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 선 총서기 까띠 깜뽀스 론톱은 달라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현명성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시기에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사 시집 《동방의 빛나는 나라》에 러따르는 만민의 열화같은 신뢰 김일성, 김정일시대에 이어 번 회주의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 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각국의 언 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으로 모신데 대해 언급하고 그이

의 위대함에 매혹된 자기의 심정 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탁월한 령도력과 정치실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김정은원수 계시여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 아 현대정치가, 현대군사가의 귀감

세계적인 리상형의 지도자 독특한 친화력과 매력을 지니신 김정은원수

그이 계시여 조선의 강산은 따뜻하고 그이 계시여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밝고 밝아라

실로 사회주의조선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주 체시대의 찬란한 번영기를 펼 쳐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이 세상 그 누 가, 인류운명의 수호자, 현시대 의 가장 위대한 국가령도자로 세 인의 각광을 받으시는 위인증의 위인이시다.

피부색과 언어,

본사기자

영원불멸할 더불 어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 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조 6.15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 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하신 때로부터 22돐이 되는 업적이 만대에 길이 빛나게

뜻깊은 날이다.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같이 말씀하시였다. 을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 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 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 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 실현하고 이 땅우에 강성부흥 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 는 튼튼한 밑천이다. 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 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여 온 한다.》 겨레가 높이 들고 나갈 통 였다. 로작에는 나라의 통일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 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 주시였다. 환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환 히 밝혀져있다.

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서이다.

되였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

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일애국의 기치를 마련해주시 제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이다.

의 원칙에서 해결하며 민족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 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할데 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 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 되였다.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무력 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 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적방법으로 실현하며 런방제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온 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 위업실현에로 온 겨레를 힘 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 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 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이 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와 시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룩하기 위한 위업을 현명하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로부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 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민 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 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였으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조 로써 이 땅우에 자주적이고 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나라 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 며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 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 시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 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며 의지라는데 대하여 엄숙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조 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주시였다.

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은 잡은 우리민족끼리리념, 그것 위 대 한 장 군 님 께 서 는 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 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 도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다결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 한 김일성주석과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 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

8월 4일은 위대 한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 수령님이시고 1970년대에 격 일의 장엄한 새시대도 펼쳐 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

고한 민족자주사상과 민족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 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 하시여 통일위업수행에서 견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 런해주시였으며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 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

민족번영의 밝은 전망을 열 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 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과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국통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자주통일의지와 탁월한 정치 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의하여 줄기차게 전진하고 에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 위대 한 장군님께서는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 추동해가던 나날 우리 겨레 누 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로 하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 구나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 조국통일로선은 위대 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 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고 명철하게 밝 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 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 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 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

>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실력에 의해 오늘 북남사이 자주통일강령인 판문점선언 과 9월평양공동선언도 마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 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있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

이다.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 높이 거족적인 통일대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

전 철 호

공화국선수들 2019년 국제탁구련맹 아시아장애자탁구선수권대회에서

2019년 국제탁구련맹 아시 참가하였다. 아장애자탁구선수권대회에 였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대북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조선과 중 승단계에 진출하였다.

서 공화국선수들이 우승하 경기에 출전한 공화국의 전주 였다. 현, 김영록선수들은 준준결승 경기에서 남조선팀을, 준결승

란을 비롯한 16개 나라와 지 기에서 공화국선수들은 서 하였다. 역의 남. 녀선수 260여명이 로 마음을 맞추며 다양한 기

술과 전술로 중국팀을 이기 단체전(TT6부류-TT7부류) 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

우승의 단상에 오른 공화 국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은 열 경기에서 타이팀을 누르고 결 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국, 인도네시아, 인디아, 이 7월 27일에 있은 결승경 전(TT6부류)경기에서 3위를

본사기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고있다. —순천세멘트런합기업소에서—

전체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력 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헤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 쳐나가는 공화국은 세인의 동경 과 격찬을 받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 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국가정치체계의 근본초석으로 되 고있는 나라가 조선이다. 사회주 의조선이 그 어떤 정치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불가능을 모르는 기적들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근본바탕에는 명백히 일심단결이 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 로 굳게 뭉쳐진 일심단결에 세 상에 둘도 없는 조선의 참모습이 비끼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언제인가 터 놓으시던 뜨거운 심중이 사람들 의 가슴을 울린다.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 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 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 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 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 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퇴약별 이 내리쪼이는 한낮에도, 별들이 총총한 깊은 밤에도, 삼라만상이 조을고있는 이른새벽에도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 가고계신다.

인민의 웃음소리 한껏 넘쳐나는 러명거리에 들러보면 새로 일떠서 는 거리가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인민의 거리로 되 게 하여주시러 수십차에 걸쳐 무 려 1 390여건의 형성안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고 뜻하지

않은 큰물로 피해를 입었던 인민들

과 자리를 같이해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이전보

다 더 훌륭한 보금자리에 들었다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끝없는 정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그이께 매혹된 인민들은 령도자

의 구상을 받들어 도처에서 세인

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

의 헌신의 발걸음에 자신들의 발

걸음을 따라세우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

과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려나가

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

해나가고있다.

는 고마움의 격정이 울리여온다.

속공업부문에서 국내의 원료, 연

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체계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고 삼지

연군건설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

지구건설장, 단천발전소건설장

들을 비롯한 건설장들에서 새로

운 건설속도로 들끓고있으며 공

장, 기업소들에서는 증산과 비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진과

비약의 구호를 제시하시면 인민

들은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일

떠서고 그이께서 어느 단위를 찾

으시여 치하의 말씀을 주시면 온

나라가 그 단위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열풍을 일으켜나가는것이

령도자와 일심일체를 이룬 공화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

룬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속에서

국의 모습이다.

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미덕의 소유자, 미풍의 선구자들 이 끊임없이 배출되고있다.

20대 꽃나이에 부모없는 아이 들을 품어안고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처녀어머 니》의 소행이나 영예군인과 가 정을 이루고 일생의 동행자가 되 는 청년들의 미덕은 모두가 한식 솔, 친형제가 되여 화목하게 사 는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얼마전에 있은 도, 시, 군인민 회의 대의원선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 국의 위력을 더 높이 펼쳐가려는 전체 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또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경남도 제201호선거구 제94호분구선거장

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여 인민의 대표들에게 투표하신데는 대의원 후보자들이 인민의 대표로서 숭 고한 사명감을 간직하고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하여 인민의 충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중앙선거지도위원회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는 전국적으 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 거자의 99.98%가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도(직할시), 시 (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 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정권에 대한 전 체 선거자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정권을 인민들은 절대적으 로 지지하고 받들고있으며 그것 으로 하여 공화국은 강하고 힘차 게 전진하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찬성의 한표, 기쁨의 한표를 바쳐가는 근로자들

면회자를 위한 식사실

주체101(2012)년 11월 어느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층에 있 는 식사실에도 들리시였다.

그이께서는 2층에 꾸린 식사실은 입원환자들을 위한 식사 실인것만큼 여기에서는 면회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원래 병원들에는 면회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식사할수 있는 장소가 갖추어져있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이 음식을 만들어 봉사해주는 곳은 아닌것만큼 면회 장소에 식탁과 의자만 놓아주면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족들과 면회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러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과일이나 청량음 료를 비롯하여 음식들을 가지고 오기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퍼놓고 환자와 함께 먹을수 있는 장소를 잘 꾸려 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품 들 여 준 비 하 신 자 료

주체104(2015)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는 이곳에 농기계전시장을 꾸려놓은 다음 인차 나와보려고 하였지만 나라의 농기계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문제를 연 구하고 현대적인 농기계들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가지고 오 느라고 오늘에야 나왔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농기계들을 조사한 자료들을 일군들모두에게 한부씩 안겨주시면서 이 자료에 는 벼농기계와 강냉이농기계를 비롯하여 250종의 농기계들 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다고, 그 농기계들은 자동식, 반자동 식, 수동식으로 되여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로력절 약형농기계들이라고 하시였다.

중 시 하 신 친 절 성 문 제

주체103(2014)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기상수문국을 찾으시였다. 기상수문국 사업의 전반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그이께서는 일기예보에서 봉사수준을 높일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기예보봉사수준을 높이자면 일기예보봉사 를 지금처럼 날씨만 알려주는것으로 할것이 아니라 사람들 의 사업과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세 심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최근에 예견되는 날씨의 특징을 알려주면서 습할 때와 건 조할 때, 황사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문제에 주의를 돌려 야 하며 겨울철에는 어느 도로에 얼음이 깔려있으므로 주 의하여야 한다는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일 일이 가르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오로지 혁명을 위하여, 나 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다.

그이께서는 가정도 청춘도 포부와 리상도 모두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결부시키시고 업에 두신 위대한 수령님의 일신의 모든것을 민족자주위 업실현에 바치시였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팔도구소학교시절에 쓰신 《애국》이라는 작문에는 이 런 대목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 가자면 많은 일을 하게 된 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고귀 한 일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 여 복무하는것이다. 그러므 어주시니 고맙다고 하시면 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위 하여 복무하는것은 우리들의

열렬한 애국사상과 민족 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맥맥히 흘러넘치는 이 구절 구절에 그 누구도 지녀본적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 민의 자식들이라고 하시였 였다. 한 인생관과 조국애가 함축 되여있다.

어린시절에 벌써 일제의 침략으로 도탄에 빠진 겨레 상을 떠나가셨다고, 저는 복무정신이 투철하시였기에 의 운명을 두고 그 누구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차 독 그 모든 고생을 락으로, 삶

가사우에 국사를 놓으시고

의 목표를 정하시였다.

원대한 포부와 리상도 오 직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 숭고한 인생관은 길림시절 의 잊을수 없는 스승에게 하 신 말씀에도 력력히 어리여 있다.

당시 상월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프로레타리아혁명 에 이바지할수 있는 작가가 될것을 권유해드리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선생 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 서 사실 전 문학과목을 특 별히 사랑하고 작가라는 직 업에 대해서도 몹시 동경하 고있다고, 나라가 독립된 후 에는 혹시 문학의 길을 선택 하겠는지도 모르겠지만 저 희들은 나라를 빼앗긴 망국 조국애와 민족애의 발현이 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저의 아버지는 나라를 찾으 한것이며 인민의 자유와 행 려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세 복을 위한것이라는 헌신적

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곧 저의 직업으로 될것이라 고 자신의 굳은 결심을 피력 하시였다.

향학열에 불타고 진취성이 강하며 꿈이 많던 그 시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찾 는 애국위업을 자신의 포부 와 리상으로 내세우시고 결 연히 험난한 투쟁의 길에 나 서신것이다.

그 나날 국제당에서 그이께 두차례나 외국류학 였다. 을 권고하였을 때에도 타국 의 유리한 조건에서 혁명리 론을 탐구할수 있는 길을 마 다하시고 간고한 조선혁명 의 현실에 몸을 잠그신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하루 빨리 구원하시려는 강렬한

온갖 고생은 다 혁명을 위

의 리상이구 포부이라고, 민 을 웃으시며 맞받아나아가 시였다.

> 가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 부모님을 비롯한 일가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남다 르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새 신을

사서 신으라고 어머님께서 주 신 돈으로 짚신을 신고 고 생하시는 어머님께 고무신을 사드리였다는 일화도 남기시

하지만 그이께서는 들에 대한 사랑, 혈육에 대 한 사랑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올려놓으시고 혁명 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 였다.

존경하는 부모님들도 이국 의 거치른 산야에 묻으시고 사랑하는 동생분들과 생리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모진 슬픔과 괴로움도 혁명을 위 하여 고스란히 가슴속에 묻 어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 다도 비통해하신 그이께서는 립투쟁에 몸을 바치려고 결 의 행복으로, 영예로 삼으 명선배였고 스승이시였던 혁명의 길, 애국의 길에 삶 심했다고, 그것이 저의 최대 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 아버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

의 아픔도 이겨내시고 결연 히 애국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리고 갓 창건된 항일유

격대를 이끄시고 남만원정 을 하시느라 어머님의 림종 도 지켜드리지 못하시였다. 부모님을 잃은 다음 가장 이 되셔야 할 몸이심에도 갈

대만 처량하게 설레이는 들 판에서 설음에 우는 두 동 생분을 남겨두신채 기약할 수 없는 투쟁의 길을 떠나 신 수령님이시였다.

가사우에 국사를 놓으시 고 혈전만리, 눈보라만리 를 헤치시며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 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 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 의 은공을 떠나 자주로 존 엄높은 공화국의 력사, 민 족의 밝은 래일에 대해 각할수 없다.

본사기자 리 설

그리움은 사람들의 내면세 계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정의 정서적발현이다.

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에 대한 진정의 분출, 간절한 심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가요 《그리움》은 경 애 하 는 최 고 령 도 자 며 돌아오실 날을 손꼽아 기 김정은원수님을 열렬히 흠모 다렸다. 하고 따르는 공화국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고 뜨겁게 반영한 노래이다.

나의 간절한 소원 그 누가 들어준다면 부디 하늘을 나는 날 개를 주려마

저 멀리 아득한 창공 을 새처럼 날고날아 원수님 가시는 그 길 을 따르고싶어라

훨훨 끝없이 날으는 그리 운 마음아

있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공통적인 소원은 령도자가 가시는 길을 따르 며 그이와 언제나 함께 있고 지 못하였다. 오직 령도자와 싶어하는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훨훨 날아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 는 곳마다 따르고싶어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안고 인 민은 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 더욱 그리워하며 령도자가 없이 많다.

高见의 即品을 담아

주체102(2013)년 7월 아랍사회부흥당 부 총비서 아브둘라 알 아흐마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린 선물

对

수리아에서는 용감성의 상징으로 간주되 고있는 장검을 전장에서 용맹을 펼친 사람에 게 수여하는 풍습이 전해져내려오고있으며 장검을 선물하는것은 높은 존경의 표시로 된

다고 한다. 부총비서는 전 승 60돐 경축행 사에 참가하기

였다.

그이의 외국방문소식이 사 람들의 첫인사말이 되였고 그리움이라고 할 때 그것 어른들과 아이들 할것없이 누구나 세계지도를 마주하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는 이국의 낯선 지명을 짚어 갔으며 일기예보를 들어 도 원수님의 건강만을 바라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 듯싶었다. 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의 발

민, 그런 혼연일체의 아름 다운 화폭은 세상 그 어디 조하게 한 이 나라 인민들의 에도 없다.

TV앞에서 경애하는 원수님

의 외국방문소식이 나오면 기 쁨과 감동의 마음안고 지켜보 았고 그 이야기로 가정의 꽃 을 피우며 밤이 깊어가는줄 몰랐다. 그 무수한 창가마다 에 흘러나오는 불빛들은 마 치 밤하늘에 가득히 흐르는 온 나라의 그리운 마음들이 별무리들을 지상에 옮겨놓은

별처럼 빛나는 그리움의 걸음을 따라 훨훨 나래쳐간 그 마음들은 단순히 외국방문의

본사기자

리아를 상징합니다. 강한 힘을 가져야만 이 평화를 지킬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올리였다.

원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그는 《조선인

민의 위대한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저

의 이름으로 이 선물을 드리게 된것을 영

수리아의 유명한 디마스끄장검입니다.

3 00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이

장검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수



팡으로 생각합니다.

불타네

간절한 그리움이다.

아버지의 길

순간도 그 품을 떠나서 못 사는 이 내 마음 원수님 오시는 그 길에 기

우리 행복을 위해 쉼없는

지금 어데 계실가 그리움

쁨만 펼치리 그이 안녕을 바라며 이 마 음 달리네

인민의 그리움은 다 함이 없는 매혹의 분출 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 에 오르실 때나 현지 지도의 길에 계실 때

게로 달리고 그이께서 우리 에게 언제면 오실가 하는 기 다림으로 가득차있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생각 하시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 력사적인 외국방문의 나날 이하며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의 애국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의 열의가 더욱 드높아지고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은 이 땅우에 펼쳐지는 모든 전변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그 품을 떠나 못산다고 터치 이 일한 사람들도 헤아릴수 는 인민의 노래 《그리움》 의 선률이 이 강산에 높이

본사기자 리경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시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환호를 올리는 근로자들(2019년 3월)

사는 《세계정치사는 국가의 최고령도자가 외국방문의 나 사람마다 제나름의 소원이 날을 보낼 때 조선인민처럼 자 국충정의 구슬땀으로 빛나는 기 령도자와 호흡도 숨결도 같 이하고 자기 령도자의 걸음걸 음에 자기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며 충정다한 인민은 기록하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

> 주의조선에서만 창조될수 있 는 희한한 현실이다.》라고 감동을 표시하였다. 와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더

적인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고싶 셨을 때 이 소원은 온 나라 은 그리움을 안고 사는 인 원수님만을 생각하면서 날과

감동적인 나날들을 직접 체험 나날을 보내시는 령도자를 나 인민의 마음은 령도자에 한 어느 한 나라의 사회계인 한시바삐 뵙고싶어하는 마음 만이 아니다.

온 나라 인민이 바친 애 그리움이다.

일터마다에서는 새로운 비약 과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였 다. 출근길에 오른 근로자 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 다. 흘러가는 1분1초의 시간 공화국에서처럼 령도자 도 아까워 낮과 밤이 따로없

먼곳에 계시는 경애하는 울려퍼지고있다.

쌓으신 업적증의 업적은 민족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시여 겨레에게 안 겨주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통일의 길에 서 언제나 높이 들고 나아가고있는 이 조국 통일3대헌장의 주요내용의 하나가 고려민주 런방공화국창립방안이다.

무릇 집을 짓자면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민족이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루자 면 그 설계도라고도 할수 있는 통일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 방안은 온 민족이 공감하고 지지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것이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이러한 문 제들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깊은 사 색에 기초하여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 인 조국통일방안을 마련하여 겨레에게 안겨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10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 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 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 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 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 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 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 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 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 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지역정부 들은 런방정부의 지도밀에 전민족의 근본리 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 을 실시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 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 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데 대하여 밝 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이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도 밝혀주시 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은 국 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 지하고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서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북과 남사이의 경제 적합작과 교류를 진행하고 과학기술과 민족 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데 대한 문제,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민 족련합군의 조직, 해외동포들의 민족적권리 와 리익의 옹호, 중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실시 등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 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 북과 남의 리해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 인 통일방안이다.

조국통일이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있고 북과 남에 오래동안 서 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 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북과 남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 해를 주지 않으며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접 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고려민주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 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혀준 설계도이 다. 이 방안은 런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 권한분배와 임무, 통일국가의 성격과 국호, 그 대외적지위 등을 북과 남의 공통된 지향 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있다.

때문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사 상과 정견, 신앙이 어떠하건, 그가 북에 있 건 남에 있건 관계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 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접수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 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내놓으시고 심화발전 시키신 조국통일방안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로 일관되여있으며 민 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 는 지도적지침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 안은 발표되자마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 레와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불러일 으켰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 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 대하고 합리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 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 명하게 이끄시여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 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크나큰 업적은 민 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정 순 진



통일만 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주체63(1974)년 여름의 어느날 인사의 말씀을 올리였다. 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의 두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시고 모든것을 나라의 번영과 는 그무렵에도 조국통일문제를 목소리를 들어보니 동무도 피 자지 못했지만 지금 나라를 통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바치 두고 심려의 낮과 밤을 보내시 곤한 모양이라고, 조국통일이란 시키지 못했으니 더 못 자고있소. 시여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고

새벽 4시경이였다.

름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지켜 어버이수령님께서 몇백배 더 피 로왔다. 는 한 일군을 찾으시였다.

깊은 잠에 들었던 그 일군은 시는것이였다. 전화종소리에 깨여나 송수화기 일군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다 시 가슴이 아프신듯 한동안 깊 를 들었다. 순간 그는 놀라지 잡으며 《어버이수령님! 아직 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우리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통일위 않을수 없었다. 송수화기에서 도 주무시지 않으십니까?》라고 는 할 일을 다 못했소. 우리는 꼭 업의 실현을 위하여 쏟아부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말씀드렸다. 음성이 울려나오는것이였다.

걷잡지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교시하시였다.

피곤으로 말하면 당과 국가사 번푹자보고싶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푸름푸 업의 중하를 한몸에 안고계시는 순간 일군의 심정은 한없이 피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

보시다가 잠시 사색을 멈추시고 곤하실것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 전화로 조국통일부문에서 일하 는 자신의 피곤은 생각지 않으시 심정을 말씀드리자 위대한 고 오히려 일군의 피곤을 걱정하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못한 절절한 음성은 계속 울려오는듯

일군은 뜨거워오르는 마음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더 젊어질것 같소.》라고 하시 렬한짓이였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였다. 나도 통일된 다음 밀렸던 잠을 한 도 조국통일문제때문에 심려하

그 일군이 자기의 안타까운 삼키였다. 채 한해한해를 보내는것이 몹 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 … 통일만 되면 나는 10년은 엇에도 비길데없이 뜨겁고도 강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아. … 백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 시며 이 한밤도 지새우시는 을 그려보며 일군은 뜨거운것을

전화는 끝났으나 수령님의

정녕 통일만 되면 10년은 더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하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은 그 무

본사기자

통일에국의 레정을 더듬어 (2)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1141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통일적중앙정부수립에 대 한 민족의 열망은 더 높이 분출 되였다. 하지만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은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로 하여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엄

중한 국면이 조성되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겨레앞에 민 족분렬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통 일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이며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6월 29일부터 7월 5일사이에 평 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가 열리 전선이 조직되게 되였다. 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자유로 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 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세우고 조 되였다.

이렇게 되여 1948년 9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가 반영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게 시 철거시키고 비법적인 《유엔

는 온 겨레의 열망과 지지, 투쟁 기관을 세우고 중앙정부를 조직 속에 창건되였다.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조국 천명되여있었다. 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공화국창건을 선포하던 력사적 인 나날에 발표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에 는 공화국정부가 전체 조선인민 을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 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 원할것이며 국토완정과 민족통일 의 선결조건으로 되는 쏘미량국 군대의 동시철거에 관한 쏘련정

모든 힘을 다할것이라는것이 밝 혀져있다. 이것은 공화국정부의 통일지향적인 성격을 잘 말해주

공화국에서는 전조선적인 민 도전하여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족통일전선형성의 절박한 요구 《5.10단선》을 끝끝내 강행하고 와 통일전선운동의 귀중한 경험 《단독정부》를 조작하였다. 이 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의 모 지지환영하면서 조국전선의 제 체들을 한데 묶어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여 1949년 6월 하 순 평양에서는 온 겨레의 크나 큰 관심과 기대속에서 북남조선 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하나 로 통합하고 거기에 조국통일을 바로 이러한 시기인 1948년 위한 투쟁에 새로 나선 남조선의 중간 및 우익정당, 사회단체들까 양에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 지 망라한 전민족적인 민족통일

대회에서는 조국을 통일하는데 운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조 서 나서는 긴박한 문제들을 토의 하고 전쟁과 외국의 간섭이 없 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체없 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 이 창건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 현할데 대한 선언서를 채택하였 다. 선언서에는 조선인민자신이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즉 조선위원단》을 해체하며 남북총 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최고립법 이처럼 공화국은 통일을 바라 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최고립법

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통 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 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 정대한 통일방책이였다. 북과 남의 애국적민주력량은 평화적 조국통일방책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일떠섰다. 공 부의 제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군중대회, 가두집회를 열고 조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

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선언서를 지지환영하며 새로운 투쟁을 결 각계 인사들은 방송과 출판물을 통하여 련이어 담화를 발표하였 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을 전적으로 여나섰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은 평화 한 온 겨레의 요구와 조국전선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38° 선일대 에 침략무력을 급속히 증강하면 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 략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쳤다.

국은 전쟁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 나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 력을 다 하였다.

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 확 을 조선에서 즉시 철거시킬것을 대회의에서는 《평화적조국통일 방책추진에 관한 호소문》이 채 택발표되였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제조건과 총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은 진심으 선거의 절차, 총선거를 지도할 중앙지도위원회 창설문제 등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 터 17일사이에 남북조선 제 정 당, 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해 주 또는 개성에서 소집할것을 제 의하였다.

하지만 내외분렬주의세력은 야수적으로 박해하는 만행을 감 화국북반부에서는 로동자, 농 공화국의 평화적조국통일방안을 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전 민, 청년학생, 기업가, 종교인 받아들이지 않았을뿐아니라 남 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도 등 각계각층 군중이 직장대회, 조선에서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발책동에 더욱 광분하였다.

공화국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 의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이 북남총선거를 통하여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정당한 제안을 반 대하는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 판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 든 애국적민주주의정당, 사회단 의를 실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획 기적방안을 제의하였다.

> 이 제의에 따라 6월 19일 최고 적조국통일방책을 받아들일데 대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평 화적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라 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 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 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이런 엄중한 정세속에서 공화 현합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성립 된 전조선립법기관은 헌법을 채 택하고 헌법에 기초하여 앞으로 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 전조선립법기관을 새로 선거하며 북남조선의 군대를 단일한 군대 1950년 6월초 조국통일민주주 로 개편하고 《유엔조선위원단》 밝히였다.

이것은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말 호소문에서는 8월 5일부터 8일 미암아 평화통일실현의 가능성 사이에 북과 남의 전지역에서 총 이 없어지고있던 엄혹한 정세속 에서도 어떻게 하나 전쟁을 방 기관을 창설하며 8월 15일에 최 지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 고립법기관회의를 서울에서 소집 법으로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의 할데 대한 평화적조국통일방책이 할데 대한 방안을 제기하였다. 지와 인내성있는 노력의 뚜렷한 증시이다.

그러나 내외분렬주의세력은 공 화국의 정당한 평화적조국통일방 안을 무작정 반대하여 나서면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회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전달하 기 위하여 남조선에 나간 3명의 북측 파견원들까지 불법체포하여

본사기자 김 영 진

남조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조 다.》, 《일본으로부터 성노예문 치에 맞장구를 치며 민족의 존엄 과 리익을 해치는 《자한당》에 다.》, 《해방된지 60년이 지났는 이다. 대한 각계층의 분노는 날을 따라 데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있는 우 높아가고있다.

각계층 투쟁단체들은 물론 일 반시민들까지도 《자유한국당》 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패 보여준다. 이런 역도였기에 내외 체결과 관련하여 《절차상 잘못 당을 《태생적인 친일세력》, 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 은 있었지만 협정내용자체에는 문 《일본자민당의 한국지부》, 《외 하고 수년전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제될것이 없다.》고 하면서 협정 적의 침입을 기회로 내분을 조장 어물쩍 덮어버리는 매국적인 홍 체결의 강행을 꾀하였으며 일본수 시비중상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하는 분렬세력》 등으로 강하게 정판을 벌리였으며 2016년 11월 상에게 독도문제를 두고 《지금 정당한 투쟁을 《감정적대응》, 성토하면서 반일, 반《자한당》투 에는 《굴욕적인 매국협정》, 은 때가 아니다. 참아달라.》고까 쟁에 펼쳐나서고있다.

최근에도 《자한당》 의 극우익보수분자들 이 《우리 일본정부》,

《친미, 친일을 해야지 친북, 친공을 하면 안된다.》, 《21세기판 을사륵약》으로 불리 지 하였다. 《토착왜구를 물리칠것이 아니라 우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토착빨갱이를 몰아내야 한다.》 을 체결하는 사대매국행위를 거리 리를 차지하고있는 황교안도 등의 망발들을 거리낌없이 내뱉 낌없이 저질렀다. 은데 분격한 각계층은 《자한당은 일본의 간첩》, 《막말배설당》,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규탄 하면서 2020년 《국회》의원선거 사쿠데타로 집권한 후 민족의 존 으로 합의한 위안부합의에 대해 에서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들고일 엄을 헐값에 팔아먹은 《유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바

어나고있다. 《자한당》의 친일매국행위는 제 애비를 《민족중흥과 근대화 일단체들을 동원하여 소녀상주 비단 어제오늘에 와서 시작된것 를 이룩한 대통령》으로, 친일 변에 《언제까지 일본을 미워해

《자한당》(이전《새누리당》) 양하여 《나라발전에 기여한 애 이 《대통령》으로 내세운 박근 국자》로 미화분식하는 력사교 내다붙이는 한편 경찰을 동원하 멸을 당하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혜가 지난 시기 《일제식민지통 과서편찬놀음도 뻐젓이 감행하 여 소녀상지키기에 나선 시민단 명백하다. 치와 남북분단은 하느님의 뜻이였 였다.

제에 대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 내세웠던 리명박 역시 마찬가지 보려 하였던자이다. 리가 부끄럽다.》는 망발을 줴친 자를 《국무총리》로 내정하였던 이름을 가진바 있는 리명박은 집 사실은 역도의 친일근성을 그대로 권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를 일제통치하에서 실력을 배

감출수 없는 친일매국당의

과거 일본군장교로서 왜왕에게 서 여러차례 《소녀상설치는 쌍

《창씨개명》까지 하였으며 군 이다.》, 《한일쌍방이 공개적

독재자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는 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친

보수세력이 《대통령》으로 는 등으로 일본의 비위를 맞추어

일본 오사까에서 태여나 이름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

야 하는가.》, 《일본을 용서해

야 한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체성원들을 조사하거나 구속하

원내대표 라경원 역시 력사외곡

으로 각계층으로부터 《라베(라경 《쯔기야마 아끼히로》라는 일본 원+아베)》,《토착왜구》,《친 일자위대원》이라는 치욕적인 별 명을 얻은 극악한 친일분자이다. 이런 친일의 뿌리를 가진 《자 한당》이기에 오늘 강제징용피해 자들에 대한 응당한 배상판결을 《정신승리》로 서슴없이 헐뜯고 있는것이다.

> 지금 《자한당》 패거 리들이 당안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특 별위원회를 내오고 대 응방안을 마련한다, 《국회》에

지금 《자한당》의 대표자 서 《일본수출규제조치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 하며 부산 을 피우고있는것은 분노한 민심 을 누그러뜨리고 친일역적당이 충성하겠다는 《혈서》를 쓰고 방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문제 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보려는 기 만적인 얕은 술책에 지나지 않 는다.

> 아무리 그런다고 친일매국에 꽉 절어있는 《자한당》이 달리 될수 있겠는가.

대대로 친일매국행위만을 일삼 아온 친일역적당이 력사와 민심 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종국적파

본사기자 박철 남

남조선에서 《자한당》이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 허우 적이고있다.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의 편을 든것으로 하여 지지률 이 급격히 떨어진데다가 설 이 급격이 된다. 상가상으로 증준해보이던 계파갈등까지 다시 터지면 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기 때문이다.

다 아는것처럼 《자한당》 안에는 크게 친박근혜파 ■ 와 비박근혜파가 존재하 고있다.

문제는 이들이 《보수대통 ■ 합》이라는 **《**거창한 목표》 달성을 놓고 저마끔 제 주장 만을 고집하면 고있는것이다. 만을 고집하면서 정면대립하

황교안을 비롯한 당지도부 것들은 보수표의 분산을 막 자면 어차피 《바른미래당》 ■ ● 은 물론 《우리공화당》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대통합》에 사활을 걸 ➡▮ 고 달라붙고있다.

친박계는 《보수대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 공화당을 끌어안는것이 맞 야 하며 그러자면 《바른미 배들이 모인 집단이 《자한 다.》고 하면서 《우리공화 래당》의 안철수, 류승민파 당》이다. 당》에 추파를 보내고있다. 최근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근 사구용장을 미롯한 《자한당》의원들이 《우리

고있다. 이를 두고 《도로 나 되찾아보려는것이 비박계 친박당으로의 회귀》라는 비 의 속심이다. 난이 터져나오자 《자한당》 사무총장이 부인했으나 불과 을 위한 계파들의 추악한 개 몇시간만에 다시 사실을 인

정하면서 현실적인것으로 되

고있다. 있다.

비박계에서는 《당이 과거 로 회귀하고있다. 2016년 새 누리당으로 돌아가고있다. 파싸움을 막아보려 하고있 당핵심부를 모조리 장악하 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일뿐 더니 급기야 우리공화당과 이다. 〈공천나눠먹기〉론의까지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정치전문가들속에서는 한동 터져나오고있다.

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과해도 너무 과했다.》면서 박계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 가를 잘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친박근혜파와 갈등을 빚고있는 비박계는 당의 지 지층을 중도층으로 확대해 를 끌어당겨야 한다고 주장 하고있다.

공화당》대표와 회동을 했 당》안에서 상실되여가고있 시간문제이다. 다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 는 저들의 지위를 어떻게 하

이 모든것은 자파세력확장 싸움인것이다.

바빠맞은 황교안이 《나는 친박에 빚진것이 없다.》, 이에 비박계가 반발하고 《내가 박근혜정부에서 일 했다는것일뿐 그때 정치를 한것은 아니다.》고 구차 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계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안 즘즘했던 《자한당》의 《자한당》의 한 비박계의 계파갈등이 수면우에 떠오 원이 《가뜩이나 도로친박 르고있다, 파벌싸움은 황교 안체제가 흔들리고있다는것 을 보여주고있다, 《총선》 《자꾸 당이 이런 식으로 가 이 다가올수록 《자한당》내 면 큰일》이라고 한것은 비 부의 갈등은 더욱 가열될것 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

> 고있다. 원래 권력이라는 비게덩이 를 물기 위해 간에 붙었다. 섶에 붙었다 하는 정치간상

이런 부패역적당에서 당의 통합이라는것은 있을수 없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한 일이고 쪼개지고 망하는것은

김장호

한 **八**

남조선에서 《자유한국 당》이 지난 4월 《국회》에 서 란동을 부린 당소속의원 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 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 고있어 민심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4월 남조선《국회》에서 벌어 진 란동은 재집권야욕실현 에 미쳐날뛰는 《자유한국 당》 패들에 의해 산생된것 이였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주요개혁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것을 육탄 이 되여서라도 무조건 막겠 다고 고아대면서 당에 《총 동원령》을 내리고 관련법안 한국당》패들은 《야당압박 들을 심의하는 《국회》회의 실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 쇄하였다. 뿐만아니라 한 야 당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 회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도 록 감금까지 하였다.

마비되고 쌍방간에는 충돌이 일어났다. 격렬한 몸싸움속 에 비명과 고성이 오가고 망 치와 장도리가 등장하였으며 부상자들이 런이어 발생하여

밖으로 실려나갔다.

론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회의실앞에서 민 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불사하며 저 지에 나섰다. 이들은 여러겹 의 인간띠를 만들어 의안접 수를 차단하기 위해 육탄전 을 벌리였다. 곳곳에서 (사 람이 깔렸다. 〉, 〈숨을 쉴 수가 없다.) 며 호소하는 목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

보다싶이 《국회》란동의 법》에 의하면 《국회》회의 주범은 명백히 《자유한국 당》패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용수사》, 《표적수사》라 고 걸고들면서 경찰의 여러 차례에 걸치는 소환요구에도 은 《국회》란동사건에 대한 버티기놀음을 하고있다.

대표 라경원을 비롯한 상층 이리하여 《국회》일정은 인물들은 《정부가 협박하고 를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짓밟아도 끝까지 투쟁할것이 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 벽은 오게 될것》이라고 떠 들면서 경찰수사에 정면으로 면하기 위해 남을 걸고들며 대응해나서고있다.

그러면 얼마전까지만 하여 도 감옥으로 갈 준비가 되 여있다고 하면서 허세를 부 리던 《자유한국당》패들이 어째서 태도를 일변하여 버 티기를 하고있는가 하는것

그것은 《국회》에서 란동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의 원직을 상실하거나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 기 어렵기때문이다.

남조선의 《국회선진화 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에서 폭력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7년의 징역형과 선거받 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여 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 수사가 다음해 있게 될 《국 특히 《자유한국당》 원내 회》의원선거결과를 좌우하 는 《최대의 변수》로 떠오

> 바빠맞은 《자한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 권》을 악용하여 위기를 모 버티기놀음을 하고있지만 그

것은 부질없는짓이다.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통

지금 남조선의 각계는 《자한당》이 《국회》란동 사건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거부하는것을 비난하면서 런 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남조선의 언론들도 《경찰 을 부린 련루자들이 이른바 의 소환조사에 대한 거부회 수가 계속 늘어나면 자유한 국당에 대한 국민여론이 더 욱 악화될것》이라고 경고해 나서고있다.

> 《국회》 란동사건에 대한 수사는 가뜩이나 궁지에 몰 린 《자한당》을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촉매제로 작용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에서 청와대《국민 청원게시판》에 《일본 극우 여론전에 리용되고있는 가짜 뉴스근원지 〈조선일보〉폐 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록되였다고 한다. 이 청원 이 등록된 후 불과 20일도 되

보

기 전에 20만여명이 친일매문지가 갈 곳은… 찬성하였다고 한다. 하루에 1만명이상 이 동의한셈이다. 이

로써 《조선일보》는 남조선 언론사가운데서 최초로 《국 민청원으로 폐간》 요구를 받 은 기록을 보유하게 되였다. 또한 《조선일보》계렬사인 《TV조선》은 승인취소요구 를 2차례나 받은 기록을 세 우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급격히 고조되고있는 반일투쟁기운 에 역행하여 민족반역행위 선의 청장년들을 징병과 징

만을 일삼는 《조선일보》 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 판이다.

《조선일보》가 민심의 규 탄과 저주를 받는것은 응당 한것이다.

돌이켜보면 《조선일보》 는 1920년에 발족한 때로부

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

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줴

던지고 민족의 존엄에 먹칠

을 해대며 침략적인 왜나라

에 충실히 복무해온 친일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선

민족말살을 노린 일제의 《창

씨개명**》**과 **《**황국신민화**》**

교육을 미화하고 수많은 조

문지이다.

낌없이 쓰고 내보낸것이 바 로 《조선일보》이다. 이런 씻을수 없는 친일매국행위의 죄값으로 《조선일보》는 응 당 8.15후에 페간되였어야 마 땅하다. 그러나 《조선일보》 는 페간되기는커녕 상전을 바

꾸고 반역의 기질을 계속 발

최근에는 남조선에 대한 일

본의 경제보복조치가 현 남

조선당국에 의해 발생한것처

럼 사실을 오도하며 일본당

국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

내놓고 《아베찬가》만을 부

르며 일본의 경제보복만행에

휘해왔다.

용에 내모는 기사들을 거리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조선일보》를 가리 켜 《아베대변지》라 고 저주하며 단죄하

역성만을 들어주는 《조선일

보》의 역겨운 추태는 남조

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

는 모독이며 천년숙적 일본

에 한을 품고있는 우리 민족

의 치솟는 분노와 증오심만

는것은 너무도 당연 하다 정의와 진실, 공정성을 추

구하는것은 언론의 생명이 다. 이것을 줴버리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다.

언론으로서의 한쪼각의 사 명감도 없고 민족의 피와 얼 도 없는 친일매문지 《조선일 보》가 갈 곳은 민심의 요구 대로 폐간되여 력사의 쓰레 기통에 처박히는것뿐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

남조선에서 일본의 경제보 복만행에 분노한 인민들의 반일투쟁이 날로 더욱 확대

되고있다.

얼마전 민주로총, 《겨레 하나》, 《전쟁반대 평화 실현국민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일 제히 성명과 론평, 립장문 발표 등을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한일군사정 보보호협정》과 같은 일본과 맺은 온갖 《협정》을 페기 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 다고 호소하였다.

《자주시보》, 《서울의 소리》, 《통일뉴스》를 비 롯한 언론들은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의 숨겨진 의 도》, 《한일경제전쟁, 아베 공세보다 문재인공세가 위력 하다》등의 제목으로 반일 투쟁을 적극 지지해주는 글 들을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이러한 속에 남조선에서 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일련대단체들이 나오고

있다. 광복회, 《강제동원문제해 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 동행동》, 평화통일시민련대 를 비롯한 30여개의 각계층 단체들은 7월 18일 《일본경 제보복에 대한 전략과 대책》 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제2의 항일독립투쟁》을 전 개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 복에 당당히 맞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면서 일본상품불매운동의 조 직적전개를 위해 광범한 각 계층이 망라하는 일본경제침

략저지불매운동범국민련대를

하루빨리 조직하기로 결정하

지는 반일투쟁기운속에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 베규탄 시민행동》이 《력사 외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규탄 2차초불문화제》 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행 위를 규탄하였다. 지난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집 회에는 수천명이 참가하여 《강제징용 사죄하라.》, 《력사외곡 규탄한다.》, 《경제침략 규탄한다.》, 《일본은 사죄하라.》,《아 베는 사죄하라.》 등의 구호

행진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도처에서 《사지 않고 먹지 않는다.》 는 일본상품불매운동이 벌어 지고 이러한 항의운동은 윁 남을 비롯하여 남조선사람들 이 가있는 여러 나라와 지

를 웨치면서 일본대사관으로

역에서도 급속히 파급되고있 다. 일본에 대한 관광과 수 학려행을 포기하는 《가지 않는다.》 운동이 벌어져 배 와 항공기운항의 취소가 꼬 리를 물고일어나고있는 속에 남조선과 일본의 지방자치단 체도시들간의 교류행사도 전 격 취소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일본상품불매 운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다 양한 형태의 반일투쟁의 도 수가 날로 높아지자 일본 언론들은 자국피해를 우려 하며 《대화로 해결하자.》 는 론설과 특별기고들을 련 달아내며 현 일본당국이 나 서서 문제를 해결할것을 요 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남조선 이 저들의 요구대로 일제강 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포기할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백

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더 욱더 오만무례하게 놀아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세분석가들 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단순 히 경제적리익을 얻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남조선을 저들의 하인으로 굴복시키 고 나아가서 남조선을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는데 그 더 러운 목적이 있다고 평하고 있다.

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 려는 일본의 침략야망은 예 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병 탄하고 나아가서 전조선반 도를 먹어보겠다는 일본의 재침야망에 온 겨레가 일 치단결하여 종지부를 찍어 야 한다.

본사기자 안권일







일본정부의 사죄와 친일적페세력의 청산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 일뉴스》에 의하면 국민주 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 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 부와 《평화나비대전행동》 이 7월 26일 대전에서 집회 를 가지고 일본정부의 사죄 와 친일적페세력의 청산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일본의 경제보 복조치는 단순히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배상을 회피해보려 는 행위인것이 아니라 경제침 략과 력사외곡책동이며 내정 간섭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을 노리며 《대동아공영권》 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아베정권에 편승하 는 친일잔재세력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행위를 공 공연히 감행하고있다고 규탄 하였다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에 아부하는 《조선일보》를 페 간시키기 위한 제2의 독립운 동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하 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일본 뿐만아니라 군국주의부활 에 추종하는 모든 적폐세력

을 청산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민들이 일치단결 하여 아베정권의 사죄와 반 성을 받아내고 일본의 경제 침략, 경제폭력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욱 일기》를 찢어버리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그들은 거리를 행진 하며 경제보복조치를 강행 한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일 본상품불매를 호소하는 구호 를 웨쳤다.

남조선단체 반일실천활동 전 개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 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서울본부가 7월 27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 설치 된 소녀상앞에서 13기 서울 지역자주통일선봉대 발대식 을 가지였다.

발대식에서

통일을 가로막고있다고 그들 일본의 경제침략을 굴욕적 은 단죄하였다. 《한》일관계를 청산하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발대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 은 강제징용범죄에 대한 사죄 을 파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와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을 전범국인 일본이 다시 전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문을 일 본대사관 담벽에 붙이였다.

쟁할수 있는 나라로 되기 위

발언자들은 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본사기자

국적본색을 낱낱이 드러내놓 아 민심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황교안, 라경원을 비롯하 여 역적당패거리들은 《대통 령》과 그 주변사람들이 반 일감정을 조장하고있다, 과 거를 덮고 일본과의 관계개 선에 나서야 한다고 고아대 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이 반 일투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의 역 할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질 싸움에 끌려들어가 는것은 재앙이다. 오히려 지 금은 친일을 할 때이다고 줴 쳐대다 못해 지난 7월 18일 에는 《자한당》소속 《국 회》의원 윤영석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우리 일본정부》라는 망언을 늘어놓아 저들의 친 일매국적정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이런 친일매국세력이 아 직도 살아숨쉬며 보수의 간 판을 내들고 《애국》을 부

지금은 친식학교

중

B(9)

卫 민족의 존엄과 리익도

일제는 대대손손 우리 민 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 과 불행을 들씌운 천년숙적 이다.

만적인 식민지통치기간에만 도 100여만명에 달하는 우 리 겨레가 일제의 총칼에 의 해 학살당하였으며 840만여 명의 청장년들이 강제련행 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렸 는가 하면 20만명의 우리 녀 성들이 일본군성노예로 끌려 가 유린당하였다.

지어 우리 민족의 귀중한 력사문화재부와 자원을 닥 치는대로 파괴략탈하다 못 해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 지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 동하였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감 행한것과 같은 반인륜적만행 은 세계 그 어느 력사에서도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아주 좋아!!

최근 《자한당》 패거리들 르짖고있으니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앞에 무릎꿇고 사 이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 진정한 애국이 실현될수 없 죄할 대신 도적이 매를 드는 외세의 롱락물로 되고있는 결을 구실로 경제침략의 40여년에 걸친 일제의 야

> 일제의 과거죄악을 묻어버 고 발광하였다.

찾아볼수 없다.

이다. 중에 없이 저들의 정략적목 적실현에만 피눈이 되여 천 년숙적과도 서슴없이 손잡 선민심이 《자한당》의 본 당은 왜나라에나 가라고 저 주를 퍼붓는것은 너무도 당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조 선사람의 넋과 얼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친일매국집단 《자한당》을 완전히 해체해버리자는 구호 를 들고 반일투쟁과 함께 반 《자한당》투쟁을 광범히 벌 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영 춘

과 관련한 남조선법원의 판 수를 또다시 뻗치는 일본을 비호두둔하는 《자한당》 패 거리들의 망동은 친일로 잔 명을 부지해온 력대 보수 《정권》의 매국배족행위의 연장이다.

리고 매국적인 《협정》체결 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 아먹은 《유신정권》시기부 터 보수패당은 《과거를 문 지 않는 신협력시대》, 《미 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떠 들며 각종 《협정》, 《조 약》체결로 남조선을 일본의 현대 판식민지로 전락시키려

이번에 일본반동들의 후안 무치한 경제보복조치를 계기 로 남조선 전 지역에서 반일 투쟁이 무섭게 노도치자 위 기를 느낀 《자한당》을 비 롯한 보수패당은 어떻게 하 나 사태를 일본의 리익에 맞 게 수습하여 저들의 더러운 재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 해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것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 는 매국집단을 가리켜 남조 적지는 일본이며 토착왜구 연하다.

얼마전 미국이 《세기적인 거래》라는 요란한 간판을 내걸고 팔레스티나와 이스 라엘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나름의 《중동평화제안》 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 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그 해 결전망이 날이 갈수록 희미 해지고있는 속에 발표된 이 제안은 미국이 10년동안 팔 레스티나인들을 위해 수백억 US\$를 투자한다는것을 골자 로 하고있다.

미국은 이 계획이 수십 년간의 분쟁을 종식시키 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 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팔 레스티나는 경제장성을 이 룩하게 될것이라고 팡고하 고있다.

그러나 광범한 국제사회는

기바적이 당 하는 평화제안 동

미국의 제안이 몇푼의 돈으 로 팔레스티나인민의 령토주 권과 자결권을 말살하고 이 스라엘의 영구강점과 정착활 동을 합법화하려는 음흉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 서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 는 독립국가를 창설하려는 팔레스티나인들의 의지를 꺾 어보려는 위험한 음모라고

단죄규탄하고있다. 팔레스티나인들은 가자지 대에서 반미시위를 열고 미 국이 고안해낸 경제자극일괄 안의 반동성을 폭로하면서 팔레스티나와 꾸드스는 팔 고 사는 물건이 아니다, 단 한치의 팔레스티나땅도 돈으 로 팔고 살수 없다고 절규 하였다.

아랍나라들도 《두개국가 해결책》에 기초하여 팔레 스티나--이스라엘분쟁을 공 정하게 해결하는것을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 룩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내세우고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지난 6월 말 바레인의 마나마에서 소 집된 팔레스티나문제에 관한 경제토론회를 통해서도 그에 대해 잘 알수 있다.

토론회에서 미국은 저들의 《중동평화제안》에 대한 지 지를 얻어보려고 하였으나 대다수 참가자들이 경제적해 결책보다 정치적해결책을 우 선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해나 섰다.

한편 로씨야외무성은 팔레 스티나문제를 이 나라의 국 가적지위문제를 해결하지 않 고 미국이 발기한것처럼 경 제적수단으로만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정치 적해결이 없이는 팔레스티나 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 인민의 민족적념원을 완벽하 게 실현할수 없다고 강조하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는 미 돈으로 팔레스티나의 동일성을 없애버리도록 내 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주 장하였으며 레바논과 마로 끄를 비롯한 나라들도 미국 의 계획을 배격하고 팔레스 티나인들에게 자결권을 부 여해야 한다는 립장을 밝 혔다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들의 세기적념 원을 짓밟고 이스라엘의 리 익만 챙겨주려는 미국의 음 모적인 《중동평화제안》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는것 이다.

김 현 일

번영일 보검으로 들어쥔고 자력갱생을

비날론공업이 주 체 적 인 창설되던

예로부터 먹지 않고는 열 집을 지날수 있지만 입지 않 고는 한집도 지날수 없다는 말이 전해져오고있다.

인민들의 입는 문제 의 해결을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기울이신 크 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누구나 먼저 떠 올리는것이 바로 비날론이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 이 한창이던 그때 벌써 승 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 체41(1952)년 4월에 열린 과 학자대회에서 자립적화학공 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환 히 밝혀주시면서 과학자들의 가슴마다에 비날론연구사업 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 기 위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 아주시였다.

그 사랑속에 과학자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전후에 끝끝내 첫 비날론을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6(1957)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정형을 토의하도록 하시고 비날론연 구를 책임진 과학자가 보고 를 하도록 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비날론연구사업정형에 대한 보고와 비날론제조공정에 대 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으시 고 비날론섬유를 손수 만져 보기도 하시며 그 원가와 용 도, 질에 대하여 자세히 료 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나라에서 비날론생산을 공업화할수 있 게 된것은 국가적으로 거대 한 의의를 가지는 성과이라 고, 우리는 비날론생산의

업화를 실현 하여 화학섞 유를 생산하 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고 교시하시 였다.

과학자들은 어버이수령님 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하여 더욱 힘껏 일하리라 는 각오를 가지고 연구사업 에 온갖 정열을 쏟아부었다.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정형

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 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비날 론생산의 공업화가 가지는 정 치경제적의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화학공장도 그 렇게 신비로운것이 아니라고, 동무들이 만들어놓은 시험장 치들을 확장하면 된다고, 우 리가 전후에 황해제철소를 건 설할 때처럼 대담하게 생각하 고 대담하게 접어들어 전인민 적운동으로 건설한다면 비날 론광장도 우리 손으로 능히 건설할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8(1959)년 3월 성천강반의 잡초우거진 벌판을 몸소 밟 으시며 비날론공장부지를 잡 아주시고 2만t능력의 공장을 짓도록 대담하고 통이 큰 작 전을 펼치시였다.

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날

론공장건설을 다그치기 위하 여 위력한 건설집단을 무어 주시고 련관된 공장, 기업소 들에서 대상설비와 자재를 집중적으로 생산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공사가 착공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비 날론공장건설에로!》라는 전 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각지의 로동자, 기술자들 은 물론 인민군군인들, 청년 학생들, 지어 가정부인들까 지 비날론공장건설을 지원해 나섰다.

가장 큰 건설대상을 맡은 인민군군인들은 무릎까지 빠 지는 진펄과 허리치는 감탕 속에서도 하루밤사이에 1만 m³의 흙을 퍼올리는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14개월 이 걸려야 한다던 알데히드. 활성탄직장의 기초파기작업 을 단 두달사이에 끝내고 합 성정류, 빙초산, 중합, 점화 직장을 비롯한 50여개 대상 의 기초축조공사를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9(1960)년 8월 또다시 건설 장을 찾으시고 2~3년안에 끝내기로 한 이 공장건설을 1년남짓한 사이에 끝낼데 대 한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시

설과제의 내용이 대단히 복 잡할뿐아니라 그 규모가 참 으로 컸다.

설계만 해도 300명이 넘는 설계집단이 2~3년을 걸려 야 완성할수 있는 량이였으 며 설계한 도면은 2대의 화 물자동차에 실어야 할 굉장 한 량이였다.

그리고 공사기간에 50만m³ 이상의 흙을 파내야 하였으 타입을 해야 하였다.

하기에 사람들은 이미 계 획된 날자에 공사를 끝내는 것만도 대단한 혁신으로 생 각하고있었다.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에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모 든 고리를 틀어쥐고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세상사람들을 놀래 우는 비날론속도를 창조하 게 하였다.

开

白

H

JE

0

4H

많은

있다.

아니라 환경보호에

유리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추세로 되고

최근 목란광명회

사 자연에네르기제

품제작소에서 자연

에네르기제품들을

적극 개발하고 생산

에 도입하여 성과를

이곳 제작소에서

는 높은 수준의 대

규모박막형태 양빛

전지판생산공정과

다결정태 양빛 전지

판생산공정을 꾸려

놓고 년산 수십MW

능력의 각종 태양빛

전지판들과 그 응용

제품들을 생산하고

초순수생 산설비,

레이자절단기, 유

리연마세척기, 플

있다.

이룩하고있다.

하루밤사이에 10만장의 벽 돌을 쌓는 기적이 창조되고 열두달이 걸려야 할 40m높 이의 굴뚝축조도 13일만에 완성되였으며 단 열흘동안에 20m높이의 정류탑이 생겨나 게 한 비날론속도는 말그대 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영웅서사시였다.

대규모의 비날론공장건설 을 1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비날론 속도는 이처럼 어버이수령님 며 방대한 면적의 콩그리트 의 은혜로운 사랑과 로고속에 서 창조된 천리마의 속도. 자 력갱생의 정신이 낳은 비약의

> 해남짓한 사이에 완공한 건 설의 대기적이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날론공 장의 준공테프를 손수 끊으 시고 그 준공을 선포하신 이 날은 바로 주체적인 비날론 공업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 적인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감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그

본사기자 김 춘 경

속도였다. 비날론공장건설은 공화국 이 자체의 힘과 기술, 설계 와 설비, 자금과 자재로 한

라즈마화학기상침적기 등 고 주체50(1961)년 5월 6일. 도로 정밀화된 설비들로 장 비된 이곳 제작소의 생산공 정들에서는 휴대용 및 가정 용, 발전소용 등 여러가지 용도와 규격의 태양빛전지판 들이 생산되고있다.

후에도 합성섬유의 연구와 그 공업화문제에 대하여 깊 이 마음쓰시며 경지가 적은 우리 나라에서 섬유문제는 결정적으로 화학섬유방향으 로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는 털을 대신할수 있는 섬유 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반 드시 화학적방법으로 해결하 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날 론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하 여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 시였다.

이렇듯 주체적인 비날론공 업은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 처럼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 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받들 려 창설되게 되였다.

정은 수동접합에 의거하는

--목란광명회사 자연에네르기제품제작소에서-

를 비롯한 자연에 태양빛전지판생산공정에 비 네르기를 적극 개 해 대단히 안정되고 효률이 발리용하는것은 전 높다. 력생산을 늘이고 이곳에서는 전기랭광검측 경제적실리 기, 모듈검측기, 태양빛모 를 얻을수 있을뿐 의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검

> 서 보장하고있다. 제작소에서 생산한 태양빛 전지판들은 수입산제품들에 비해 최대출력과 소편상태, 절연저항을 비롯한 여러 기 술적지표들에서 우수한것으 로 평가되고있다.

측설비들을 갖추어놓고 모든

제품의 성능을 높은 수준에

특히 박막형규소태양빛전 지판은 마감건재로 쓰이던 색유리에 비해 원가가 훨씬 낮으면서도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을뿐아니라 흐린 날에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 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로부 터 호평을 받고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각종 태양 **빛전지판들은 국내에서 품질** 이 가장 우수한것으로 평가 되여 국가품질인증을 받았다. 이밖에 제작소에서는 계

통병렬형발전체계에서 핵심 으로 되는 계통병렬형역변 환기를 비롯하여 휴대용태 양빛전원장치, 충방전조종 기, 태양빛전지 충전전원장 치 등 여러가지 응용제품들 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 하고있다.

계통병렬형발전체계를 리 용하면 독립형발전체계에 비 제작소에 구축되여있는 자 해 아무런 제한없이 태양빛 동화된 태양빛전지판생산공 발전량을 높일수 있고 국가

전력망과 런결되여 운영되므 로 축전지를 사용하지 않아 계통구성에 드는 비용을 훨 씬 줄일수 있다. 그리고 발 전량이 부하보다 큰 경우 남 는 전기를 국가전력망에 송 전하여 국가전력생산에 직 접 참가하는 등 경제적의의

가 크다. 목란광명회사 자연에네르 기제품제작소의 건물 그 자 체가 태양빛에네르기발전소 로 되고있다.

수천m'의 건물벽면에 일체 식으로 설치된 박막형태양빛 전지판들과 옥상에 설치된 다결정태양빛전지판들은 건 축미학적효과를 높여주는것 과 함께 한해에 수십만kWh의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조명 및 동력보장에 리용하고 남 은 전력을 국가전력망에 송 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계통병렬형발 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면 서 얻은 풍부한 경험에 토대 하여 많은 단위들에도 적극 도입하고있다.

제작소에서는 계통병렬 형발전체계외에도 독립형 발전체계와 계통병렬형발 전체계를 혼합한 혼합형발 전체계, 발동발전기를 리용 한 3중전원체계도 도입해주 규었다

이곳 제작소에서는 자연에 네르기개발에서 세계패권을 쥘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그 개발 및 생산, 도입에 박 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비날론피설유

지하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 싶은것은 인간의 소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과 관 련한 도서들을 즐겨 읽는 다. 도서 《100년장수에로의 길》(개정판)도 그중의 하나 이다. 2000년에 출판되여 나 온 후 새롭게 보충되고 더없 활의 길동무를 보지 못하였 이 풍부화된 이 도서는 장수 다.》, 《건강과 장수를 바 자들의 실례와 그림, 성구, 속담 등을 배합하여 건강장 책을 읽어야 한다.》… 수와 관련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서술한것으로 하여 독 주는 이 책을 읽고 담배를 을 건져주는 의사가 되리라 자들속에서 큰 인기를 끌고 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 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생 지 않다. 이 책을 읽고 저 각하고 많은 책을 읽었지 마다 100년장수에로의 길을 만 (100년장수에로의 길) 걸을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 만 한 폭과 깊이를 가진 생 다고 말한다.

한 가정과 40여권의 의학도서들

받으며 널리 애독되고있는 들을 써냈다는것이였다. 이 도서가 어느 한 중앙병 려 40여권이나 집필한 사실 을 알게 되였다.

병원의 류림원장을 찾아갔 다. 직장외과분야의 쟁쟁한 실력가인 류림원장은 의료일 군으로 일해오는 지난 20년 찾은 건강의 묘리》, 《직장 암의 외과림상》, 《복부외 과학》, 《민족유산, 전통의 술》 등 가치있는 도서들을 집필하였다고 한다. 보통강 생의 소년시절은 불우하게 구역인민병원 의사로 일하는 흘러갔다. 해방전 그의 아버 녀동생 류호춘과 류경안과종 지는 고된 로동의 후과로 다 테리가 100만명인데 한사람

우리는 인민들의 사랑을 부 백원명도 많은 의학도서 의사의 직업처럼 보람차고

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질에 맞는 운동료법을 선택

하고 효과를 본 사람들도 적

비날론솜

무릇 도서집필을 두고 뼈 원 기술부원장이였던 교수 를 깎고 살을 에이는 일이라 박사 류식선생과 그의 가족 고 한다. 그만큼 부피두터운 이 공동으로 집필한것이라는 도서를 쓰는것은 쉽지 않다. 것, 지금까지 류식선생의 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 정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서 헐치 않은 도서집필까지 이바지하는 의학도서들을 무 스스로 맡아하고있는 이들을 보니 속으로 존경이 갔다.

《우리 가정에서 의학도서 그에 깃든 남다른 사연을 집필을 시작한것은 아버지때 알고싶어 우리는 류식선생 부터였다. 아버지는 외과의 의 맏아들인 평양시제3인민 사로서, 중앙병원 기술부원 장으로서 바쁜 몸이였지만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 다. 그 나날 아버지가 써낸 의학도서들과 론문들을 쌓아 간 《100년장수에로의 길》, 놓으면 키를 넘을것이다. 아 《60청춘의 비결》, 《다시 버지는 자기가 쓴 책들이 인 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바랄것이 없다고 늘 외우군 했다.》

류림원장의 아버지 류식선

어머니마저 병으로 일찍 세 상을 떠났다. 어머니를 잃고 의 큰 재부로 되는 책을 많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장차 사 이 써낼데 대하여 간곡하게 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생명 가르치시였다는 소식을 접하 건강장수의 비결을 알려 마음먹었다.

> 로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끓이였다. 전공하게 되였다. 대학을 졸 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세상에 직업은 많아도 다.) 영예로운것은 없다. 왜냐하 처음으로 집필한 도서 《위 면 가장 귀중한 사람들의 생 명과 건강을 지키는것은 의 사밖에 없기때문이다. 그래 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 리 의사들에게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 겨주시였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생명의 기사, 그 고귀한 칭호를 소중히 새겨 안고 류식선생은 날렵한 수 술솜씨와 지칠줄 모르는 열 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 명을 구원해냈다. 류식선생 에게는 의료활동과정에 체험 한것들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내가 보고 체험한것을 가 지고 책을 쓰면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환 자치료로 바빠 선뜻 붓을 들 지 못하고있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에 인 합병원 기술부원장인 둘째매 리를 쓰지 못해 쌍지팽이신 이 책을 하나씩 집필하거나

세를 지지 않으면 안되였고 번역해도 100만종이 될것이 는 수술칼과 붓을 무기로 삼 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나라 게 되였다.

아. 이것이였구나! 책을 그후 시골소년의 소박한 써내는것이 나라의 재부를 꿈을 꽃피워주는 고마운 조 늘이는 성스러운 애국사업이 국의 품속에서 그는 희망대 라는 생각으로 그는 가슴을

(수술칼과 함께 붓을 들 업하던 날 강좌장선생은 그 자! 나라에서는 누구나 두 몫, 세몫할것을 바라고있

이렇게 되여 류식선생이 절제술》이 나오게 되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치료활동속에서 인민들의 병 치료에 도움이 될것을 바라 는 마음을 안고 쓴 도서는 의료일군들속에서 반향이 컸

고 누구나 쉽게 갈수 없는 먼 려정을 쉬임없이 걸었다. 그 과정에 류식선생이 혼자 썼거나 공동집필하여 내놓 은 가치있는 의학도서만 해 도 30여권, 각종 소론문들은 100여건에 달하였다. …

애국심과 나라의

평회의 분위기는 자못 진지 했다. 류호춘이 쓴 원고를 읽은 소감을 나누며 좋은 점 은 무엇이고 부족하거나 보 충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허 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무척 인상깊었다. 그 공부를 시켜주고 의료일군으 런 우리에게 류림원장은 도 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에 서집필과 관련한 가족합평회 온 집안이 지혜를 합쳐 도서 가 처음이 아니라면서 추억 을 더듬었다. …

였다. 그 말을 들으니 가족 합평회를 어떻게 하는지 보 고싶은 마음이 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류림원장은 마침 일요일에

녀동생 류호춘이 집필한 원

고를 놓고 가족합평회를 하

는데 꼭 와달라고 하는것이

격식없이 진행되는 가족합 가 열리였다. 류식선생은 모 좋은 음식재료, 산부인과 의

말하였다.

여온 자식들앞에서 이렇게

《사람은 은혜를 갚을줄 알아야 한다. 우리 가정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큼 행복 한 가정이다. 우리에게 대학 (100년장수에로의 길)을 훌륭히 써내는것으로 보답하

절절히 울리는 류식선생의

목소리는 자식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이어 가족성원 들에게 도서집필을 위한 면 밀한 분담이 차례졌다.

맏아들인 류림은 건강생활 방식과 술, 담배의 해독성, 둘째아들은 장수자들에 대한 현지료해, 맏딸은 세계적벆 위에서의 건강장수와 관련된 자료수집, 둘째딸은 건강에 사인 류식선생의 안해는 녀 성건강, 안과를 전문하는 둘 째사위는 안과부문의 자료수 CD에 넣어 리용해도 좋을것 집, 로어전문가인 맏며느리 이라고, 이 책에는 60청춘으 는 의학원서번역…

음이 되여 도서집필에 달라 하하시였다. 붙었다. 그 나날에 있은 일 명할수 있겠는가.

맏사위 한영남의 회상: 지를 많이도 다니였다. 인 적드문 산골에까지 다니면 했다.》

까지 무슨 자료작업을 해오라 라의 귀중한 재부들이다. 고 과제를 주면 어떻게 하나 제 기일에 해내군 하였다.》

《100년장수에로의 길》! 리 가정의 가풍이다.》 물론 도서의 내용도 좋고

대단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그토 록 기쁨을 드리게 될줄은 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 강과 장수에 필요한 의학 상식들과 자료를 묶은 도서 《100년장수에로의 길》을 몸소 보아주시고 책이 잘되 였다고, 콤퓨터에 입력시켜 독자들이 어느때든지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온 집안이 기특한 생각을 가지 고 썼다니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후 이들 온 가족의 노력 이 깃들어있는 도서 《60청 춘의 비결》이 출판되였을 때에도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새로 나온 의학도서 《60청 춘의 비결》이 잘되였다고, 로 살기 위한 건강관리방법 이때부터 온 가족이 한마 이 적혀있는데 잘 썼다고 치

둘째딸 류호선은 《분에 들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설 넘치는 영광을 받아안던 그 날 우리가 하는 의학도서집 필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 《도서집필을 위해 전국각 적인 사업인가를 다시금 절 감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쓴 40여권의 의학 서 병치료에 특효있는 약초 도서들, 그것은 인민들의 건 들을 알아가지고 가족합평회 강증진을 위해 그토록 마음 에서 론쟁에 열을 올리기도 쓰시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 깨끗한 량 둘째사위 백원명의 회상: 심을 바쳐가는 이들의 뜨거 《장인이 〈어명〉 으로 언제 운 애국심이 깃들어있는 나

류림원장은 말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 그 나날 드디여 원고가 완 은 의학도서를 집필하겠다. 성되였고 또 얼마후에는 도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서가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위해 헌신하는것, 이것은 우

오늘도 이들은 의학도서집 편집도 삽화도 나무랄데 없 필이라는 과제를 스스로 말 었다. 독자들속에서 반영도 아 안고 지혜와 정열을 아낌 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평남온천은 온천군 온천읍 에 있는 염화염천이다. 룡강

많은 온천들과 마찬가지로 욕장이 꾸려졌다. 평남온천도 오랜 력사를 가

헌에 기록되여있는것

을 보면 500여년전부터 민간 이 며

로 리용되여왔다. 점차 감탕 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밭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옷 가르쳐주신 료양소가 자리잡

며 들에서는 오곡백과가 무 서가 든다.

립추는 이때로부터 가을철 이 시작된다는 뜻을 가진 말 이며 처서는 이날부터 여름 더위가 가시기 시작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립추는 대체로 8월 7~8일 에 해당되며 처서는 8월 8월 23일이다.

접 련관되여있는 날로서 농

건설방향과 방도,

고 한다. 그후 이 지방에서

칠월칠석(음력 7월 7일)날 우리 겨레는 집집마다 저녁 립추는 8월 8일이며 처서는 밥을 일찍 지어먹고 마당의

바라보면서 바늘귀꿰기놀이 도 하였다.

평 남 온 천 의

만성소대장염, 습관성 변비증과 고혈압, 여러가

지 원인의 신경통, 류마치

이 있었다 수단은 찹쌀 또는 흰쌀, 는 빙단이 있었다. 멍석우에 둘러앉아 견우성과 찰수수 등을 가루내여 쪄서

8월의 민속음식으로 수단

만큼 빚은 다음 얼음을 넣 은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담 그어먹는 시원하고 찬 음식 이날 녀인들은 장농의 옷 을 꺼내여 해볕에 말리고 손

본사기자

상극이기때문이라는것

수단에는 보리수단과 얼음

본사기자

전서》에는 죽이 우리 민족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겨 레는 시원한 랭면과 함께 죽 을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

어지는 여름철에 더위를 가 시고 몸을 보양하는데 좋은 민족음식으로 일러왔다.

편찬된 문헌들에는 죽에 대 한 기록이 있는데 그에 의 하면 그 가지수는 수십개나 된다.

18세기의 도서인 《청장관

의 일상음식의 하나로 되였 다고 기록되여있다. 민간에서는 녀성들이 훌륭

한 며느리가 되려면 20가지 는 말까지 전해

용도에 쓰인 죽은 지방마다 특색이 있었다.

박죽 그리고 강원도지방의 토장아욱죽과 섭죽 등이다. 본사기자



씱목과 관련철 속말 (2)

중복에 장마가 지지 않 으면 말복에 가서 틀림없 이 장마가 진다는것을 이

❖ 복지경에 곡식 자라듯 우줄우줄 자라듯이 아이들 이 무럭무럭 커감을 비겨

❖ 삼복더위에 고기국 먹은

몹시 무더운 때에 뜨거운

본사기자

에 대한 조사자료에 기초하 여 이 릉이 고려초기의 무 덖이라는것을 잡지 《조선 고고연구》를 통하여 발표 써 고구려문화와 고려문화의 하였다.

학생들은 고려시기의 왕릉급

는 온혜릉은 고려태조 왕건

온혜릉이 고려태조 왕건 의 할머니 원창왕후의 무덤 으로서 고려시기 왕릉가운데

1993년에 온혜릉을 발굴하였 으며 무덤내부구조와 유물들

모서리부분이 무덤칸 남쪽중 무덤이 고려초기에 축조된것 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

는 무덤보호담장(곡장)시 였으며 이 담장시설과 평향 으로 한돌기의 돌들을 나란 히 놓은 배수시설을 발굴히

나왔다.

조사발굴을 통하여 무덖의 규모나 돌가공수법으로 보아 릉이 고려봉건국가가 왕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상 당히 품을 들인 왕릉급무덤

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고려초기 왕릉급무덤인 온

본사기자

사화

글 김칠환, 그림 채대성

라갔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여 기저기 산발을 타고다니며 아보리로다!…) 하고 생각한 머루, 다래, 송이버섯도 따 부자놈은 속에 품은 가시보 고 풍치구경도 하면서 날을 따리를 능치며 짐짓 선량한 보내였다.

그러다가 어느날 샘골에 냥이가 걸려들자 그놈을 잡 아가지고 마을에 내려왔다. 이제나저제나 하며 김서방

이 사슴을 잡아오기만을 기 다리던 배부자는 성이 독같 이 올라 눈알을 굴리며 호통 을 쳤다.

슴은 아니 잡고 가죽도 못쓸 어느덧 해는 한발이나 솟아 이따위를 잡아왔느냐. 그래, 올랐다. 금강산에 많은 사슴은 다 달 아나고 없어졌다더냐?》

는 길목을 지키여 몇날몇밤 이란 조심스러운 령물이여서 좀처럼 잡기 어렵소이다.》

김서방은 천연스레 대꾸했 다. 그 말에 부자놈은 성이 더욱 부글거렸으나 제 눈으 로 보지 못한 일이라 어쩌는 수가 없었다.

바람을 쏘여 신수가 멀쩡해진 링하여 무춤 멈춰섰다. 것 같은 김서방을 보며 속으로 바로 승냥이함정을 파놓은 알량한 생각을 굴리였다.

장생불로명약이라고 하니 사 스레 오가며 안타깝게 우는 며 호통쳤다.

김서방은 다시 산으로 올 슴을 잡아서 그 뿔을 제 혼 것이였다.

자 먹고 감추는것이 아닐가? 한번 가만히 그 꼬리를 밟 체 웃음을 지어보였다.

《자네 어쨌든 그새 수고 파놓은 함정에 마침내 큰 승 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니 오 늘은 푹 쉬고 래일아침 다시 산으로 오르게나.》

다음날 아침 김서방은 바 산으로 올라갔다.

수정같은 옥계수를 이리저 리 건느고 엷은 안개구름을 《네 이놈, 잡아오라는 사 헤치며 세존봉중턱에 오르니

부자놈이 자꾸 사슴을 잡 아오라니 이제는 어쨌으면 곳으로 오지를 말아라.》 《소인이 짐승들이 다니 좋을고? 오늘은 귀떨어진 락 각(저절로 떨어진 사슴뿔) 을 기다렸사오나 원래 사슴 이라도 하나 주어야 할가보 다 하고 생각하며 샘골어구 에 이른 그는 문득 골안에서 울려오는 사슴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었다. 김서방은 다급히 언덕을 향해 달려올라갔다.

비탈길을 타고 언덕마루에 그러나 부자놈은 이 며칠 산 올라선 그는 그만 가슴이 철

그 주변에 새끼사슴 여러 마 (저 김서방이 혹시 록용이 리가 오구구 모여서서 부산 (엄지사슴이 함정에 빠진

모양이로구나!) 김서방이 달려가 무너진 함 정을 내려다보니 아니나다를 세라 승냥이가 빠졌던 그 자 리에 이번에는 큰 엄지사슴 한마리가 빠져있는것이였다.

김서방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함정으로 내려 갔다. 그리고는 무서움에 떠 는 엄지사슴을 안아 함정밖 줄과 괭이를 어깨에 걸메고 으로 내놓았다. 엄지사슴은 다리를 절룩거렸다.

김서방은 곧 싸리나무껍질 을 벗겨 사슴의 긁힌 다리를 싸매주며 자기의 잘못을 빌 듯 말했다.

《네가 어찌 여기 승냥이 함정에 빠졌느냐. 다시는 이 그리고 엄지사슴을 새끼사

슴들이 기다리는 저켠 숲속 으로 보내주었다. 엄지사슴은 고마운듯 몇번 이나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 아보더니 이윽하여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이때였다. 갑자기 뒤쪽에 서 부시럭소리가 나더니 부 자놈이 불쑥 숲속에서 나타 났다. 자기를 의심쩍게 여긴 부자놈이 하인 몇을 데리고 펄 뛰며 김서방에게 뭇매를

뒤를 밟아온것이였다. 부자놈은 급히 함정가까이 다가오더니 김서방을 노려보 먹고사는 주제에 네깐놈이

어쨌느냐?》

함정변두리에 사슴발자국 아라!》 이 어지러이 나있고 허물어 가 눈에 뜨일뿐이였다.

부자놈은 분명 김서방이 사슴을 잡은것을 먼발치에서 보고 달려온것이였다.

김서방은 무엇이라 변명했 으면 좋을지 몰랐다. 《네 이놈, 사슴을 내놓지

않을테냐. 고현놈같으니!》 부자놈은 하인들을 시켜 찼다.

《사슴을 내가 놓아주었소

《이놈, 방금 잡은 사슴을 엄지사슴을 다시 잡아오기 켜 밖으로 나갔다. 전에는 산에서 내려오지 말

> 부자놈은 김서방을 죽도록 진 바닥에는 사슴털 몇오리 때리고나서 쓰러진 그를 내 었다. 버린채 산에서 내려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기쁜듯 눈을 슴벅이며 그의

한참만에야 겨우 정신이 든 김서방은 가까스로 몸을 일 으켜 가까이에 있는 산전막 을 찾아갔다.

피멍이 든 몸이 온통 쑤 시고 불로 지지는것 같았다. 조롱조롱 맺혀있는데 사람모 죽은듯 산전막에 쓰러져 양으로 생긴 그 뿌리는 분명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발로 있던 그는 문득 누구인가 한뿌리만 먹어도 만가지병이 《톡! 톡!》 하고 밖에서 두 드리는것 같은 소리를 들었



찌 잡을수 있겠소이까.》 그 말에 부자놈은 더욱 펄

안기였다. 《어— 이놈! 내 집에서 그리 인정이 많았더냐. 그

이다. 많은 새끼사슴들을 거 다. 혹시 지나가는 바람소리 느린 엄지사슴이라 차마 어 인가 하여 귀를 기울이는데 다시 《톡! 톡!》 하고 두드 산삼이 흔한 고장으로 되니 린다.

> **《**뉘시오?**》** 적막한 이 산전막에 자기 산삼을 들고 샘물터를 찾아 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 갔다. 그리고 샘물터두리에 상하였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

놓아준 그 엄지사슴이 여러 새끼사슴들을 거느리고 서있 엄지사슴은 김서방을 보자

몸에 머리를 문대긴다. 그러

뜻밖에도 밖에는 자기가

더니 입에 물고온 이상한 풀 세포기를 김서방에게 주었다. 약초인것 같았다. 풀포기 마다 빨간 진주알같은것이

씻은듯 낫고 무병장수한다는

보기 드문 산삼이였다.

(고맙다, 사슴아, 내가 너 를 놓아준것은 네가 착한 짐 승이기때문이건만 너는 나에 게 오히려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구나!)

김서방은 가슴이 찌르르 하여 엄지사슴을 바라보는데 새끼사슴들도 입에 물고온 머루, 다래송이를 그의 가까 이에 놓아주는것이였다.

이어 사슴들이 돌아가자 김서방은 산삼을 보며 생각 이 깊어졌다. 그는 그 귀중 한 산삼을 혼자서 먹고싶지 않았다. 산삼이 지금 한창 열매를 맺는 때이니 산삼을 심어 널리 자래우면 동네의 앓는 사람들도 다같이 산삼 을 먹고 무병장수할것이 아 닌가? 그리고 금강산은 또한 그 아니 살기 좋을가?…

이렇게 생각한 김서방은 삼을 정히 심고 물을 촉촉히 끼얹어주었다.

국보유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국보유적으로 등록하였다.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 였던 고려의 수도 개성의 송 악산 남쪽기슭에 위치하고있

온혜릉은 고구려시기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그후 발해, 후기신라, 고려시기에도 계

속 전통적으로 리용된 조선 민족의 중세무덤형식인 돌칸 흙무덤으로 되여있다. 《신중동국여지승람》 《중경지》,《송도지》 를 비롯한 옛 문헌기록들에

서 첫번째로 기록되여있다. 이미 공화국 학계에서도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 온혜릉에 대한 전면적인 조 되였다. 사발굴사업에 달라붙었다.

무덤칸과 무덤무지북쪽부 분에서 쇠로 만든 관고리. 회색도기, 검은색도기, 연 록색자기를 비롯한 유물들도

혜릉이 전면적으로 발굴되 고 국보유적으로 등록됨으로 계승관계가 더욱 명백해지고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 은 고려초기의 왕릉급무덤인 부히 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도의 발전은 그 시대의 생산 서로 공통하였다. 과 교환, 소비관계의 총체를 반영하며 경제발전면모를 엿 볼수 있게 한다.

선시기의 경제발전을 보여 으로 드러난것이다. 주는 화폐유물들이 발굴되 였다.

암을 원형으로 다듬고 가운 있다. 데부분에 자그마한 원형구멍

화폐의 출현과 화폐경제제 을 뚫어만든것들로서 형태상

주목되는것은 표대부탁터 유적에서 이러한 돌화폐들이 1~2개정도의 적은 수가 아 1994년에 평양시 삼석구역 니라 고조선시기의 사람들이 호남리의 표대유적에서 고조 살던 집자리유적에서 다량적

표대유적에서 발굴된 돌화 폐유물들은 고조선에서 일찍 고조선시기의 화폐유물들 부터 상품화폐관계가 발전 은 표대부탁터유적의 2기층 하였으며 경제생활에서 화 과 3기층에 놓인 집자리들에 폐상품의 류통이 활발하게 서 발견되였는데 모두 점판 진행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

본사기자

(2) (2)

독 서 가 들 의

녀학생이 교수에게 요즘 류행되고있는 어느 한 책을 읽었는가고 물었다. 교수는 읽지 못했다고 솔 못했습니다.》

직히 말했다. 녀학생: 《아니, 그 책이 나온지 석달이나 되였는데 온지 벌써 수백년이나 되 아직도 읽지 못했습니까?》 였소!》

교수: 《학생은 단뗴의 (신곡) 을 읽었소?》 녀학생: 《아니요. 읽지

교수: 《그럼 서둘러야 겠소. 그 책은 세상에 나